달라이 라마, 불교 성문제 해결 앞장서나

'미투구루' 운동 외치는 성학대 피해자들
9월 14일 달라이 라마 면담… 도움 호소

박정현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불교계 성학대 문제에 묘수를 제시할 수 있을까. 티베트 불교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 ·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티베트 불교인 4명은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SNS상에서 '미투구루(metoo_guru)'란 해시태그를 달며 전 세계에 불교계 성학대 문제를 알리고 있는 이들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에 앞서 온라인 서명 1300건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12명의 진술서를 달라이 라마에게 대표 제출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달라이 라마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달라이 라마가 실질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으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면담에 참여한 오인 비즐스마(Oane Bijlsma)는 "티베트 불교 전통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달라이 라마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는 11월 불교지도자모임에서 성적 · 육체적 · 정신적 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불교지도자 성범죄 드러나며
SNS '미투구루' 공감 확산돼
달라이라마도 공론화 움직임
"25년 전에 같은 문제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들과 만남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달라이 라마는 네덜란드 방송 NOS와 인터뷰에서 "불교 지도자들의 성학대 문제를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이번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5년 전 누군가 내게 교단 내 성폭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서구 지역 라마



달라이 라마가 지난 9월 1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불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nbcnews

불교지도자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이 같이 언급했다는 것.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불교 지도자의 미투(Metoo)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7월 캐나다의 유명 티베트 불교 지도자 사경 미팜 린포체(Shakhong Mipham Rinpoche)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샴발라커뮤니티(Shambala Community)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미팜 린포체는 "나로 인해 불교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추행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티베트 불교 지도자 쇼걀 린포체(Sogyal Rinpoche)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피해 여성 신도 8명의 고발에 따르면 소걀 린포체는 기혼 여성 신도뿐 아니라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해 왔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소걀 린포체는 자신이 설립한 수행 공동체 대표에서 물러났을 뿐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가톨릭 내 성직자들의 성학대 등을 알고도 대상자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지 부다가야서 폭탄 추가 발견

지난 1월 폭탄테러 불발탄, 테러범 자백에 회수
"로힝야 학살에 대한 항의"
미비한 치안에 주민 불안



폭탄의 현장검증을 위해 설치장소로 이송중인 범인. 사진출처=비하르 포스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 부다가야에서 폭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비하르 포스트' '걸프뉴스 인디아' '더 아시안' 등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인도현지 경찰은 15일 부다가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부다가야에서 있었던 연쇄폭탄테러의 범인 딜라왈 후사인이 심문과정에서 또 다른 폭탄의 소재지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폭탄은 당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된 곳과 동일한 공중화장실의 물탱크에 숨겨져 있었다.

지난 1월초 부다가야에서 열린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 세계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폭탄테러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인도경찰은 금속탐지기와 폭탄탐지견을 동원해 법회장 인근을 수색, 총 3개의 폭탄을 찾았다. 당시 체포된 범인은 "로힝야족 무슬림들을 미얀마 불교도들이 학살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폭탄을 설치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심문에서 범인은 "총 4개의 폭탄을 설치했다"고 자백, 즉각 폭탄처리반이 폭탄을 회수했다. 경찰 측은 "다행히 불발했지만 폭탄기능은 유효한 상태였다"며 "현재로써 더 이상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폭탄의 종류나 살상력 등에 대해선 추후 다시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줄였다.

부다가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월 당시 경찰은 '모든 상황은 경찰 통제 하에 있다'며 호언장담했다. 8개월이나 지나서 동일한 곳에서 불발탄을 찾아내는 게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냐"며 경찰을 비난했다.

부다가야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 폭탄테러로 2명의 스님을 포함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경계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도와 근접한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극대화 되면서 불교성지들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예고가 발표된 바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락 · 포크송 · 댄스… '스님밴드' 인기몰이

락 밴드 하는 日스님들
새로운 포교방안 확산
목사밴드와 합동 공연도
"스님의 샤우팅 기상천외"



라이브 공연 중인 '중 밴드'의 스님들. 사진출처=유튜브

신도들이 절을 떠나가는 '사찰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불교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포교방안이 시험되는 가운데, 스님들이 락밴드를 운영해 화제다. 지난 9월 10일 일본의 '니프티 뉴스'는 화제의 스님밴드들을 소개했다.

일본불교계 최초의 스님밴드는 그룹 명칭부터 '중 밴드(坊主バンド)'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로 결성 8주년을 맞는 이 밴드는 정토진종, 조동종, 진언종 등 다양한 종파의 스님 8인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스님들은 모두 불교용어에서 따온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

리더인 스님의 예명은 시키소쿠제오(色即是空男), 반야심경에서 따온 것이다. 스님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온다. 분위기가 고조돼 스테이지로 올라오는 분도 계신다"며 웃어 보였다.

공연에 사용하는 악기도 기타나 드럼뿐만 아니라 목탁이나 바라, 비파, 통소와 같은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법구를 사용하고, 무대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연기를 자욱하게 내는 등 신선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 밴드'가 유명해지자 다양한 스님 밴드들이 나타났다. 포크송 멜로디에 불경을 가사로 쓰는 'G · 푼다리카', 댄스뮤직에 염불을 함께하는 'Tariki Echo' 등의 밴드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밴드 'Tariki Echo'의 멤버 스님들은 본산에서 예불과 의식을 지도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계에서 밴드가 결성되자 라이벌인 '목사밴드'도 탄생했다. 멤버 전원이 목사인 '목사 ROCKS'는 스님밴드들과 함께 '목사ROCKS vs 스님밴드'라는 이름의 합동 라이브공연을 하는 등 종교를 초월한 음악적 교류를 보이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이 기타를 매고 불경을 샤우팅 하는 모습이 기상천외했다" "락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불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를 줄 몰랐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절에서 봉사한 무슬림에 '갑론을박'

누리꾼 "종교 넘은 선행" vs "무슬림 원칙 배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여성이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슬람교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불릴 만큼 종교 통제가 심하다.

9월 18일(현지시간) 알바와바는 "사우디 여성이 뉴욕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선행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쉬햄 알 두하임(Sheham Al Duhaim). 그는 사원에서 봉사자 및 명상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쉬햄은 자신의 트위터에 불교 사원에서 일주일 간 머문 소감과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유목민 출신으로 어린 시절 염소와 양과 함께 살았다. 자연히 내 꿈은 농민이었다"며 "그런데 (미국으로 온 후)은행 계좌에 100달러밖에 없어 적은 돈으로 여행할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행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SNS에 급속히 확산되며 화제가 됐다. 그녀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기 때문.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며 게시물은 7000건 이상 공유됐다.

트위트 계정 @albandr5**는 그녀에게 "훌륭한 경험을 공유해줘 감사하다. 감명 받았다"고 리트윗했다. 또 다른 트위트 계정은 "그들의 종교를 뛰어 넘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쉬햄을 옹호했다.

반면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무슬림인 그녀가 사원에 거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

트위터 계정 @trlivhp20**는 "어떻게 무슬림이 절에서 봉사할 수 있냐"며 "나도 봉사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 한한다. 이것은 무슬림으로서 법과 원칙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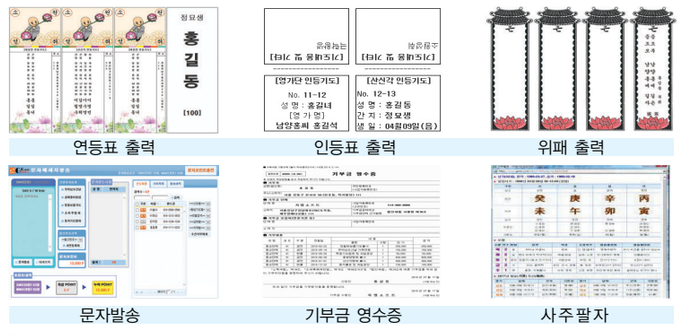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